

## 피서지에서 생긴 일



朴 錦 子  
〈박금자산부인과원장〉

휴가는 기다려지는 일 중의 하나이다. 막상 휴가를 시작하면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설날을 기다리는 아이들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더운 때에 휴가를 동시에 원해서, 어딜가나 북닥댄다는 짜증스러움만 없으면 역시 휴가는 여름에 가야 제대로 가는 것 같다.

1983년이었던가. 몽산포 해변가에서의 휴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나날 이었다.

바닷물과 백사장 그리고 주변 여건이야 여느 해수욕장에 비교해서 특별히 나을 것도 없었다.

첫날 도착해서 겨우 어떻게 숙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고 온 가족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몇시쯤 되었을까. 잠깐 잠이 깰 때 멀리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트럼펫소리는 비몽사몽중이었던 나를 정신이 바짝들게 했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

아, 그 소리는 「길」이라는 이태리 영화에서 들었던 그 주제가였다.

야수같은 안소니 퀴에게 끌려 다니며 이고생 저고생하던 여주인공 제르소이나가 즐겨 부르던 그 멜로디.

한 밤중의 트럼펫소리는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 소리가 나는 곳까지 이끌고 갔다.

음대를 다니고 있던 두 젊은이가 방학중에 내려와 임시 해변무대를 차린 것이었다.

약간의 음료를 팔면서.

몽산포에 3박4일 있는 동안,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는 저녁이면 그 해변무대에 가서 연주를 듣고 차 한잔씩을 마시는 귀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실 사이 없이 들려오는 파도소리.

그 역겹의 소리를 타고 밤하늘로 퍼지는 트럼펫소리.

온통 은실로 수놓인 밤하늘에 가련한 한가닥 외로움으로 퍼진 그 소리는 내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7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여름휴가를 갖지 못했던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여름 해변가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 날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 고운 은하수를 꿈꾸면서.

몽산포를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정때문에 그 근처의 M해수욕장으로 가게 되었다.

비교적 시설도 잘된 편이었고 바가지 요금이긴 했지만 다행히 숙소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밤이 됐다. 누가 또 트럼펫이라도 한번 안붙여 줄려나. 내 기대는 10시도 안되어 깨지고 말았다.

민방위훈련을 알리는 정도의 고성능 확성기로 누군가 뭐라고 방송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 보지 나와서 같이 놀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구경이라도 해 볼 셈으로 해변가에 나갔다.

머리는 짧고 신체가 건장한 20~30명의 젊은이들이 무대앞에 질서도 정연하게 앉아 있었고, 비록 전자오르간과 기타뿐인 2인조 밴드였지만 상당히 연주를 잘하는 1류 악사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런대로 잘 어울려서 놀았고, 자정이 되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자기네들끼리 놀기 시작한 그 젊은 사람들(준비된 현수막에는 무슨 협회라고 되어 있었다).

새벽 1시가 되도 4시가 되도 계속 신나게 놀아 제졌다. 새벽 5시쯤이 되자 그 성능 좋은 앰프소리가 그쳤다.

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쫓아 나가서 몇마디 따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초저녁 공연에는 나도 참석했다는 죄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었다(사실은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다).

둘째날도, 셋째날도 시간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들은 새벽 2시까지 젊음을 발산했다.

3일동안 이가 갈리도록 각종 가요와 푸닥거리를 만끽하고, 잠은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수 밖에 없었다.

아, 똑같은 음악소리인데, 어쩌면 이렇게 7년전의 그 소리와 다른 것일까.

옛날의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할 정도로 깊고 편안한 안식을 주었다면, 이번의 그 소리는 거의 지옥에서나 들려오는 소리였다.

다시는 해변쪽으로 휴가를 오지 않으리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하면서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야 좋다는 정도의 의학지식은 내게도 있다.

뿐만 아니다. 젊은 날, 젊은 정열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우리 사회에서 해변가의 캠프화이어, 그리고 신나는 노래와 춤은 오히려 권장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 아닌가. 아무리 놀러 왔어도 사람은 밤엔 자도록 되어 있다.

수련의 시절. 정말로 잠이 부족해서 어느 구석에 앉기만 하면 졸던 시절. 존다고 무던히도 혼났지만 사람에게 잠처럼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뼈속 깊숙히 느껴지던 시절.

밤을, 그리고 잠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잔다는 것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서울에 돌아와서 우리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불평을 늘어 놓다가, 나는 그 머리짧고 잠 안자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들었다.

그것은 내 얘기를 다 듣고난 후 수간호사가 해 준 말이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서울에 와도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자는 사람들이예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은 직업을 속일 수 없는 걸까.